

가축에게는 만족을! 양축가에게는 이익을!

CKF, 육계 계열화 사업 본격 진출

CKF가 사료공장 준공과 함께 육계 계열화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주)CKF(대표이사 박형)는 지난 5월 18일 충북 옥천 소재 배합사료공장 준공식을 갖고, 이를 발판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CKF는 1966년 천광산업이란 상호로 설립된 이후 1982년 천광사료를 합병하여 사료

사업에 뛰어들어 양축가들에게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왔다.

그 후 2002년 4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회사 상호와 제품 브랜드명을 지금의 CKF로 변경하고, 지난해 10월 약 100여억원을 들여 17,000여평의 대지 위에 건평 1,400여평의 사료공장을 신축, 5월에 비로소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최첨단 설비로 배합능력 향상

이번에 준공된 사료공장은 일산 400톤 생산 규모로 저장·분쇄·배합·가공시설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었으며, 특히 첨가제를 별도 저장해 계량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항생제 라인을 별도로 분리해 항생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게다가 사통팔달의 위치에 접하고 있어 지리적 잇점을 기반으로 양질의 사료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CKF는 이번 사료공장 준공을 발판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나아가 충청북도의 새로운 로컬 브랜드로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의 육계 계열화 업체로 제2의 도약

(주)CKF는 과거 천광사료 시절, 축산물 사육 시장에 사료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인 농장주와 회사의 공동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구상해 오던 중 '계열화 사업'이라는 해법을 얻어 2004년 12월부터 육계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여 동안 8개 농장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맺어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사육농장이 회사에 바라는 기대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회사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안정적인 계열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박형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CKF가 축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CKF는 18만수 규모의 직영농장인 합덕농장과 평균 4만7천수 규모의 40여개 위탁사육농가가 있으며, 3개 부화장으로부터 주당 20만수의 병아리를 공급받아 입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육규모를 기존 월 11만수에서 90만수로 무려 약 9배 정도 규모를 확장했으며, 지난해 소비자단체 선정 우수 HACCP 도계장인 충남 당진 소재 흥인농산과 위탁도계 계약을 맺어 현재 1일 1만5천수 이상의 육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주)CKF는 향후 안정적인 육계 계열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위탁사육 농가수를 지금의 40여개에서 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의 주당 28만수까지

병아리 입추량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오직 사육에만 전념해 생산지수 220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농장시설 개설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약품 및 백신 프로그램과 (주)CKF만의 우수한 사료급이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닭고기 소비량 증가를 위한 새로운 유통형태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은 물론, (주)CKF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100% 보장제 등을 실시해 육계산업에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각오다.

(주)CKF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사에서 생산된 모든 닭고기 제품에 대해 'CKF 하늘빛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올해 6월부터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3월 30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형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직원들의 맨파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앞으로 (주)CKF가 충북지역의 새로운 치킨 브랜드 바람을 일으켜 완전한 육계 계열화업체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본다. 